

두동편백마을 자치연금 도입 익산 여행 “시티투어로 즐겨요!”

익산 제3호 전국 제4호 마을 선정... 올해 안 재원 시설 완료

익산에서 세 번째이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한 마을이 탄생해 화제다.

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살기좋은 농촌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시는 성당 ‘두동편백마을’을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당포구마을, 한열 금성마을에 이은 전국 제4호이자 익산시 제3호 마을자치연금이다.

해당 마을은 올해 안에 마을자치연

금 재원 시설을 완료하고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마을자치연금 제3호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마을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마을환경이나 기술·제도적 환경에 적합한 마을을 발굴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고령화로 취약해진

농촌의 경제회복과 복지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자치연금은 지속적인 농촌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완주군 도계마을이 전국 제2호로, 한열 금성마을이 전국 제3호 마을로 추진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연말까지 순환형·테마형 관광 명소 투어버스 운영

익산시가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를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관광객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형,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형 투어버스는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일 7회 운행한다. 익산역을 출발해 고스락, 교도소세탁장, 미륵사지(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 보석박물관 등 순환하며 승차권은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테마형 버스는 익산 숨은보석 찾기와 세계유산, 맞춤형 코스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월요일과 추석 당일 운영 제외하고 매일 1회,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운행하며 운행 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익산 숨은보석 찾기는 오전 10시 익산역을 출발해 내리위성지, 고스락, 교도소세탁장, 보석박물관, 익산문화예술의 거리를 관망하며 세계유산 코스는 쌍릉과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다.

맞춤형 코스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관광지 3곳 이상으로 코스를 꾸며볼 수 있는 단체관광객 맞춤형 코스이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하여 관광 명소를 소개하며 백제왕궁 등 익산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의원·시 하나되어 새만금신항 지키자”

군산시의회, 새만금동서도로·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의원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제발전혁신국장, 새만금에너지과장, 항만해양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동서도로·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하며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지변 확대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가 논리를 개발해내는 토론회를 자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차가 그동안 집행부에 촉구해왔던 군산새만금지킴이법시민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시민운동과 잘 연계해야 한다”며 “그동안 인일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까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에 시정이나 부시장이 참여하지 않고 국장만 간담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무시무시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박경태 의원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맞춰 새만금 논리개발 등 각종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대응 논리에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타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논제를 모색하고 김제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

여 새로운 논리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세자 의원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시민단체나 의원이 함께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당초 군산새만금신항의 착공 이유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만금에 대한 업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고 알아챈 직원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가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IT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팀에 각 상임위원이 2명 이상씩은 영입하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영토를 빼앗긴 장군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빼앗긴 1, 2호 방조제가 되찾을 희망이 없다면 보상받을 시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 한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익산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보험 항목을 확대한다.

10일 시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이용, 자연·사회재난사고 등은 최대 1천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및 후유장애 최대 3백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 치료비 1천만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위료금은

만 15세 이상 만 80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3백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익사사고 사망은 일반상해 사망 항목으로 전환됐으며 기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증가했다. 최근 발생한 야생동물상해 사망사고도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상해, 갑전상해, 사회재난상해,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난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하여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주민과의 대화’ 대장정 돌입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 ‘주민과의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 시장은 오는 14일 왕궁리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3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보다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우선 전문 사회자를 초청해 토코소를 진행하며 정현을 시장의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각 읍면동의 이색사연 청취, 우리 동네 주요현안 대담 등 다수의 주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이거나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경로당이나 주요 현안이 있는 마을,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민원해결사의 모습도 변함없이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동네 행복버스도 정현을 시장과 함께 출동한다.

정 시장이 버스를 타고 29개 읍면동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고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주민은 버스에 탑승해 정 시장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올해 모집 대수는 총 288대다. 참여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내부 소통창구 익명토론포방 개선안 마련

군산시가 2023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토론포방’ 운영 개선에 나선다.

익명토론포방은 시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익명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민선 내부 게시판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개설해 2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전한 공론의 장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서로 다른 의견제시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켜 결국 내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쉽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실정이다.

그럼에도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이 같은 내부 익명 게시판이 주는 긍정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존치는 하되 개선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익명토론포방의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게시글의 경우 매주 간부회의에 보고해 실질적인 상·하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